

백석 시와 토포필리아

노용무(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여행자의 시선과 현실의 장소감 |
| 2. 공간론의 심상지리와 인문지리학의 장소론 | 5. 만주의 무장소성과 고향에의 회귀의식 |
| 3. 과거의 공간과 기억의 장소애 | 6. 결론 |

1. 서론

이 글은 백석의 시에 나타난 토포필리아(장소애)의 양상을 주목하여 시인의 장소 의식이 시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인의 시의식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인문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간과 장소애를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인문지리학의 연구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 본고는 백석 시에 나타난 장소애를 분석하기 위해 시인이 체험한 현장이나 장소에 대한 사유 등이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백석의 시세계는 서로 다른 성격의 작품들이 혼재되어 있어 관점에 따라서는 순차적인 변모양상으로 접근되거나, 어떤 계보에도 쉽게 귀속시키기 어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424)

은 ‘독특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¹⁾ 예를 들어, 백석에 대한 평가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김기림의 ‘유니크’²⁾는 ‘새로움’이란 의미로 모더니티가 쓰였다. 그러나 모더니티가 지니는 다양한 측면의 일부분일 뿐이란 점과 당대 모더니즘 시운동을 이끌었던 김기림의 관점에서, 이전의 모더니즘 시풍과는 ‘낯설게 하기’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낯설게 하기’의 스타일 리스트 이면에 놓인 전통 세계의 추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이다. 이에 대한 논자들의 경향도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리얼리즘 계열의 경우, 백석의 시가 민족공동체의 삶을 형상화하여 일제 강점기 민족 주체성을 확보한 민중/민족 문학의 한 경지를 보여 주었다고 평가한다.³⁾ 이와 달리 모더니즘 계열의 경우, 백석 시의 형식적 방법 및 구조와 시어⁴⁾를 통해 분석하거나 근대성

- 1) 류경동, 『잃어버린 시간의 복원과 허무의 시의식』, 『1930년대 후반문학의 근대성과 자기성찰』, 깊은샘, 1998, 355면.
- 2)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 1. 29.
- 3) 김종철, 『30년대 시인들』, 『문학과 지성』, 1975년 봄.
윤지관, 『순수시와 정치적 무의식』, 『외국문학』, 1988년 겨울호.
김재홍, 『민족적 삶의 원형과 운명에의 진실미』, 『한국문학』192호, 1989.
이승원, 『백석 시의 전개와 그 정신사적 의미』, 『현대시와 현실 인식』, 한신문화사, 1990.
박주택, 『낙원회복의 꿈과 민족정신의 복원』, 시와시학사, 1991.
최두석, 『백석의 시 세계와 창작 방법』, 『리얼리즘의 시정신』, 실천문화사, 1992.
김용직, 『토속성과 모더니티』, 『한국 현대시 해석 비판』, 시와시학사, 1993.
김명인, 『백석시고』, 『백석』, 고희진 편, 새미, 1996.
이동순, 『민족 시인 백석의 주체적 시정신』, 『백석 시 전집』, 창작과비평사, 1997.
박주택, 『백석 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병초, 『백석시의 고향의식과 형상화 방법』, 고려대 석사논문, 2006.
권영옥, 『백석 시에 나타난 토속성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7.
이승원, 『백석 시에 나타난 자아와 대상과의 관계』, 『한국시학연구19호』, 2007.
이민정, 『백석 시의 신화적 상상력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소래섭, 『백석 시에 나타난 음식의 의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8.
최수현, 『백석 시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10.
이소연, 『백석·운동주 시의 동심지향성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1.
김형욱, 『백석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12.
- 4) 고희진, 『백석 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3.
이승원, 『풍속의 시화와 늘변의 미학』,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정재형, 『백석 시의 시어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9.
고형진, 『백석 시 바로 읽기』, 현대문학, 2006.
이승원, 『백석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2006.
박순원, 『백석 시의 시어 연구시어 목록의 고빈도 어휘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7.
이승원, 『백석을 만나다』, 태학사, 2008.
서란화, 『백석 시의 방언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10.
서정호, 『백석 시에 형상화된 시어의 이미지층적 특성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11.

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대 모더니즘의 한 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한다.⁵⁾

이상 논의에서 백석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토속성과 향토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전통지향성이다. 논자들은 전통지향성을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바라본 결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문제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아우를 수 있는 시적 원리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장소에는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문제와 연결된다. 먼저 시간의 문제에 대해 백석의 작품을 연구하는 글은 작품에 나타난 분위기, 이미지, 시제, 화법, 어법 등의 구체적 형상화 전략을 분석하여 시인의 의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⁶⁾ 또한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다룬 글은 시간과 공간의 속성에 내재한 밀접한 관련성을 주목하여 상상력과 지향성을 밝히고 있다.⁷⁾

공간과 장소애와 연관된 연구 성과를 축적⁸⁾하고 있지만 본고에서 논의의 대

-
- 5) 최학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과 주체 욕망의 체계에 대한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4.
김승구, 『백석 시의 낭만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김재용, 『근대인의 고향 상실과 유토피아의 연원』, 『백석 전집』, 실천문화사, 2003.
최정례, 『백석 시의 근대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4.
지주현, 『백석 시의 서술적 서정성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08.
서효인, 『백석 시 연구-모더니티 구현양상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논문, 2009.
- 6) 심재휘, 『한국 현대시와 시간』, 월인, 1998.
김혜영, 『백석 시 연구』, 『국어국문학』131호, 국어국문학회, 2002.
김은철, 『백석 시 연구-과거지향의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15집, 2004.
맹재범, 『백석 시의 시간문제에 관한 한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7.
유병관, 『백석 시의 시간 연구』, 『국제어문』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최정례, 『백석 시어의 힘』, 서정시학, 2008.
심재휘, 『시간을 밀봉하는 방법:백석의 『여우난굴』』, 『시안』제13권 2호, 시안사, 2010.
김수경, 『백석 시의 시간 활용 방법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2.
- 7) 차한수, 『백석 시의 시간·공간성 고찰』, 『동남어문논집』6호, 동남어문학회, 1996.
류지연, 『백석 시의 시간과 공간의식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문재, 『김소월·백석 시의 시간과 공간의식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8.
- 8) 노용무, 『정지용 시의 이미지 연구-집 이미지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논문, 1997.
엄창권, 『집없는 시대의 길가기-일제강점기 한국 현대시의 공간구조』, 한국문화사, 1999.
최만중, 『김소월 시에 있어서 '장소애'의 현상학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1.
문재원, 『문화전략으로서 장소와 장소성』,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소 편, 2007.
이혜원, 『김소월과 장소의 시학』, 『생명의 거미줄』, 소명, 2007.
김태준, 『고향, 근대의 심상공간』,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편, 역락, 2008.
임승빈, 『경관분석론』, 서울대출판부, 2009.
김정은, 『김광균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인문사회논총』17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윤의섭, 『정지용 후기시의 장소성』, 『현대문학이론연구』4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상으로 하는 백석의 작품과 관련하여 박태일과 유인실의 연구가 유일하다. 박태일은 백석의 작품을 “개별적인 집짓기가 아니고 혈연의식으로 뭉쳐진 겨레 모두의 집짓기”였음을 강조하고, 백석의 공간 체험과 생생한 장소 사랑이 현실에 대한 강한 대응기제였음을 살폈다.⁹⁾ 또한 그는 장소는 사람의 실존이 지니게 되는 바 뜻 깊은 사건을 겪는 목표거나 초점이 됨과 아울러 주체가 깃들여 머무는 곳, 또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고 파악하며, 김광균, 이육사, 백석, 윤동주 네 시인의 공간 체험현상을 밝혔다.¹⁰⁾ 유인실은 로컬적 관점에서, 작가의 작품에서 특정한 지역이 호명되는 것은 그러한 장소의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라 판단하고, 백석의 거주 공간에 따라 고향 체험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살폈다.¹¹⁾ 이러한 실존적인 장소론은 본고의 논의 방향과 연관된다. 본고가 백석의 시를 인문지리학의 화두인 장소애라는 관점으로 읽어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층위의 관점을 일관된 맥락으로 엮어낼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백석과 그의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의 근거에는 항상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 정황적 측면이 강하다. 그의 시를 일컬어, 전통적인 삶의 재현과 민족공동체의 구현 등이나 모더니스트로서 당대 모더니즘의 새로움을 추구했다는 기법적 측면의 논의를 모두 포괄하는 매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백석 시에 형상화된 장소애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이 당대의 현실을 사유하는 주체의 정체성을 고찰하는 방식일 때 구체적인 장소애와 장소감을 추적함으로써 시인의 내면의식과 지향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백석 시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이중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백석의 현실인식에 관한 기존의 평은 상반된 성격을 보여준다. 그의 시가 드러내는 전통성, 향토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형상화를 통해 일제에 저항하고 민족 정신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는 평과, 전통지향성을 과거의 것을 추구한다는 맥락에서 시적 화자의 척박한 현실을 회피하려는 의도라 규정하고 현실의 대안적 공간이라는 의미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대척적 관

김민숙, 「노천명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12.

9) 박태일, 「백석 시의 공간 현상학」, 고희진 편, 『백석』, 새미, 1996.

10)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11) 유인실, 「백석 시의 로컬리티 연구」,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건지인문학』7, 2012.

점의 논구는 연구 대상의 제한성과 더불어 전통지향이 아닌 일련의 기행시편에서도 현실지향성이 나타나고 있어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왜냐 하면, 백석의 이력과 관계한 여행 과정을 통해 이향과 귀향을 반복하고 있고 이때 공간감과 장소애를 통해 그 의미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 향과 관련하여, 시적 자아의 현실인식 지점을 형상화된 내용과 긴밀히 연관된 시적 전략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식민지 현실을 어떤 형태로든 감내해야 했던 시인의 내면 의식과, 식민과 피식민의 길항관계를 시 작품에 투영된 구체적인 장소애의 형상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지 상황에 놓인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풍경과 그의 시쓰기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상동성을 지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백석 시에 나타난 장소애를 추적함으로써 백석의 시 연구에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사 검토를 통해 나타나듯 백석 시의 전통지향성을 모더니티지향성과 대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민족적 소재인 전통이 백석의 시작 원리와 긴밀하게 연관하여 만나는 지점을 장소애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영문학 전공자인 ‘모던 보이’ 백석의 근대성에 드러난 현실인식과 그의 시 작품에 나타난 전통지향성을 전통의 또 다른 모티프인 장소와 장소애의 다양한 층위를 고찰하여 그의 시가 지닌 구체적인 문학적 실천 행위를 살펴보는 의미를 지닌다.

2. 공간론의 심상지리와 인문지리학의 장소론

시인의 존재는 시 작품을 전제로 가능하며 시 작품은 시인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전제로 가능하다. 이때 가장 근원적인 장소로 나타나는 것이 ‘집’과 ‘고향’이란 체험의 현장이다. 그곳은 시인이 한 존재로서 존립할 수 있는 존재론적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의 토대인 ‘흙’과 관련한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연속적 세계관을 배태하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인간의 모태와 회귀의 상징인 ‘어머니’의 이미지와 자아를 둘러싼 ‘우주’의 세계를 인식하는 최초의 출발이기도 하다. 문학에서 형상화된 장소는 한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고찰하

는 토대이자 시정신을 파악하는 근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백석의 시와 장소애를 다룬 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방식의 도입이란 맥락에서도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증주의 지리학은 1970년대 이전에 활성화되었다. 실증주의적 지리학에서 다루었던 공간은 주로 물리적이거나 기하학적 공간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이때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또는 텅빈 공간으로, 인간의 선험적 인식 속에서 기하학적으로 재단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지리학의 공간 개념은 인간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혹은 극복해야 할 거리비용으로 인식되거나 지표나 지도상에 영역을 표기하는 매개로써 인식되었다. 이러한 점은 공간을 인식하고 심상지리를 그리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이자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지배하는 어떤 법칙이 내재한 객관적 대상으로 물상화되기도 한다.

실증주의 지리학의 공간은 인간 활동의 배경으로 대상화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는 무관한 어떤 것으로 객체화되거나 객관화되는 개념이다. 이때의 물리적 공간은 어떤 물체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성을 지니지만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지리학의 공간 개념을 달리하면서 나타난 분야가 인문지리학이다.

인간주의 지리학으로 불리기도 하는 인문지리학은 실증주의 지리학의 공간 개념을 비판하면서 현상학, 해석학, 실존주의 등과 통섭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지리학의 공간과 장소 개념을 새롭게 개념화하여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 등 이전의 지리학에서 간과되었던 인간의 의식 세계를 부각시킨다. 인문지리학의 핵심은 ‘장소’이다. 서구 근대의 공간적 확장에 영향을 미친 심상지리는 공간의 추상성에 기반하는 개념이다. 즉, ‘물리적 맥락으로서 시간, 공간, 물질이 어우러져 있는 물질의 객관적 형태’¹²⁾라는 자의적 의미와 함께 인간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 따라 혹은 인간의 개별적 욕망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는 추상적 공간이다. 특히 시의 공간은 텍스트에 형상화된 인간의 삶을

12) 에드워드 소자 외, 이무용 외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106~107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주관의 지향성’¹³⁾이 될 수 있다. 이때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인문지리학의 관점에 설 때, 그 동안 객관적·양적·기하학적인 ‘사실중심적’ 공간개념을 주관적·질적·위상수학적인 ‘인간중심적인’ 공간개념으로 옮겨감으로써 지리적 세계를 주관적 의미연관에서 이해하게 된다.¹⁴⁾

에드워드 켈프에 의하면, “추상공간은 반드시 경험적 관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관계에 의해 구성된 공간을 추상공간이라고 한다.”¹⁵⁾고 규정하고 “인간의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창조되는 것으로서 상징적 사유의 결과”¹⁶⁾이다. 이러한 논의는 그대로 심상지리의 공간론과 다름없다. 이때 공간과 구별되는 장소를 재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상과 개념의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주변과 인지의 차원으로 변환하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소는 안전이고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경험지인 반면 공간은 자유이고 위험, 개방된 곳으로 장소보다 더욱 추상적이다.¹⁷⁾ 왜냐 하면, 인문지리학의 현상학적 공간은 인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인간의 ‘경험적 관점’이다.

공간을 거주 문제의 문제로 보는 볼로프는 삶의 모든 현실을 묶는 구체적인 장으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거주는 인간의 실존을 파악하는 근원이며, 공간은 실존과 연결된다는 것이다.¹⁸⁾ 공간성은 물리적 배경으로서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장소의 뜻뿐만 아니라 이야기 자체의 공간, 심리적 공간 등 의식이 지속되고 있는 장(場, field)의 의미를 포함한다.¹⁹⁾ 이때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특정 장소와 관련된 장의 의미를 장소감과 장소애로 드러낸다.

장소애(topophilia)는 인간이 자신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공간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사랑을 의미한다. 장소애의 어원은 토포스(topos)로부터 연원한다. 토포스는 어느 문맥 속에서나 발견할 수

13)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 비평사, 1988, 17면.

14) 정진원, 『인간주의 지리학의 이념과 방법』, 『지리학논총』11집, 1984, 79면.

15) 에드워드 켈프, 김택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69면.

16) 위의 책, 같은 면.

17) 이-투 푸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5, 19면.

18) Otto. F. Bollnow, 백승균 역, 『삶의 철학』, 경문사, 1979, 234~235면.

19)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39면.

있는 진부한 비유나 표현, 또는 암시적인 상투 어구를 뜻한다. 예를 들면, 즐거운 장소는 분명 지리적·기후적으로 ‘쾌적함’을 주는 장소를 가리킨다. 이 어구는 독자에게 특정 경관에 대한 이미지, 중요한 공간에 필요한 실제적 묘사를 전달한다.²⁰⁾ 따라서 토포스는 장소라는 중심축을 지닌 의미로서 문학적 제재 및 모티프로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인간이 경험과 관련하여 확장시킨 개념이 장소애라 할 수 있다.

장소애란 인간과 장소 또는 배경 사이의 정서적 결합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특정 장소에 대해 느끼는 강렬한 애정이나 태도를 포함한다. 달리 말하면 일상적 경험에서 쉽게 얻어질 수 없는 심오한 방식으로 경험주체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절정경험²¹⁾을 의미하는 장소감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감을 이루는 원천은 장소이다. 이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장소애와 상대적 개념인 토포포비아(topophobia, 장소혐오)이다. 장소혐오는 ‘지금-이곳’이 아닌 과거의 장소나 이미 체험되었던 실존적 장소에 대한 장소애가 강렬할수록 증폭되는 장소 소외감이다. 따라서 장소애를 드러낸다는 것은 역으로 장소 혐오를 내재하고 있다는 내밀함의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인문지리학의 장소와 관련한 이투 푸안과 에드워드 렐프의 논의를 정리하면 장소애와 장소감 그리고 장소성은 각각 장소상실과 비진정한 장소감 그리고 무장소성과 대응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장소에 대한 친밀도를 기반으로 구성된다면 후자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근거로 하는 개념이지만 모두 장소에 대한 의식을 공통분모로 하는 것이다.

장소는 고유한 입지, 경관, 공동체에 의하여 정의되기보다는 특정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장소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생활 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으로 의미·실재·사물·계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으로 모든 장소는 자연물과 인공물·활동과 기능·의도적으로 부여된 의미가 종합된 총체적인 실체이다.²²⁾ 인간이 장소와 맺는 본질적 관계와 이 장소를 통해서 공간과 맺는 본질적 관계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속성인 거주에 있다.²³⁾

20) 이재선 편, 『문학 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140면.

21)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51~252면.

22) 위의 책, 287-288면.

거주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삶과 경험의 영역에 해당하는 생활의 세계이다. 따라서 거주는 생활의 문제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장소와 연관된다. 장소감이 미지의 어떤 곳이 친밀한 장소로서 다가올 때 그 지역에 대한 느낌 또는 의식²⁴⁾을 뜻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면 장소는 경험주체에게 어떤 의미로 한정되어 나타나며,²⁵⁾ 오랜 세월 꾸준한 감정교류를 통해 깊은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장소를 분석하는 것은 한 시인의 장소애와 더불어 장소혐오 또는 장소상실을 살피는 작업이자 구체적인 장소의 안과 밖을 경계로 나타나는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시인이 장소를 통해 작품을 생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전체와 장소를 둘러싼 시인의 의식세계를 명징하게 드러내 준다는 견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점은 공간을 비롯한 장소 분석이란 인간의 내면적인 삶의 장소들에 대한 조직적·심리적 연구²⁷⁾에 해당한다.

3. 과거의 공간과 기억의 장소애

집은 떠난 자에겐 언제나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움의 장소이다. 떠난 자의 온갖 체취와 함께 산 자들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들이 몽상을 살았던 장소들은 새로운 몽상 속에서 저절로 복원된다. 과거의 거소들이 인간들의 내부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바로 그것들의 추억이 몽상처럼 되살아지기 때문이다.²⁸⁾ 또한 과거엔 초라하고 불평불만이 많았을 집일지라도 몽상을 통해 되찾은 추억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기이한 융합으로 언제나 기운을 되찾게²⁹⁾ 해주는 것이 집이다.

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호()와 휴식의 가장 친밀한 공간이자, 장소

23) 위의 책, 73면.

24) 이투 푸안, 앞의 책, 7~8면.

25) 나카노 하자무, 최재석 역, 『공간과 인간』, 도서출판 국제, 1999, 44면.

26) 이투 푸안, 앞의 책, 44면.

27) 가스통 가솔라르,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120면.

28) 위의 책, 118면.

29) 위의 책, 123면.

임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때는 몸이 아플 때, 자연재해 및 춥고 더운 계절, 고달픈 여행, 그리고 일과 노동에 지쳤을 경우이다. 아프고 긴 여로의 떠돌이 생활과 피곤한 노동이 고역으로부터 우리의 고달픈 몸을 편히 쉬게 하는 곳도 바로 집이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맥락에서 집은 자연스럽게 고향의 함의를 지시한다.

개인의 내밀함이 공존하는 집이 교차되어 확장된 곳은 마을이자 고향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난 땅과 조상이 물려준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고향'에 대한 애착과 안정감을 터득한다.³¹⁾ 이러한 고향에 대한 의식은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관된 장소로부터 나온다. 공동체의 정체성은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 획득되고 장소의 정체성은 공동체 의식을 통해 각인되는 것이기에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한 장소의 안과 밖은 장소와의 일체감이나 소속감 등의 의식을 규명하는 매개이다.

장소의 안에 위치해 있다면 내부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그 장소와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외부에 있다면 장소에 대한 진정한 내부성을 갖지 못한 장소 소외감이나 장소 혐오의 상황을 일컫는다. 전자의 경우가 장소를 통한 정체성을 내재한 장소에의 뿌리내림(rootedness)일 때 후자는 진정한 내부성을 갖지 못한 장소 상실감에 해당한다. '뿌리내림'이 혐오한 환경에 대한 의도적 가치 부여가 아니라, 무의식적·비반성적으로 안전하고 안락한 존재 상태를 의미³²⁾할 때 장소의 내부감과 외부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준거라 할 수 있다.

내일같이 명절날인 밤은 부엌에 켜듯하니 불이 밝고 솔뚜껍이 놀으며 구수한 내음새 곱국이 무르끓고 방안에서는 일가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퍼며 조개송편에 달송편에 전두기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 팔소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 」에서

30)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432면.

31) 김태준, 앞의 책, 13면.

32) 최병두, 「장소의 역사와 비판적 공간이론」, 『로컬의 문화지형』,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소년 편, 해안, 2007, 68면.

노란 싸릿잎이 한불 깔린 토방에 햇썰방석을 깔고
나는 호박떡을 맛있게도 먹었다

—『여우난골』에서

닭이 두 해나 올었는데
안방 큰방은 쾌죽하니 당등을 하고
인간들은 모두 웅성웅성 깨어 있어서들
오가리며 석박디를 썰고
생강에 파에 청각에 마늘을 다지고

—『』에서

그리고 새벽녘이면 고방 시령에 채국채국 얹어둔 모랭이 목판 시루며 함지가
땅바닥에 넘너른히 널리는 집이다

—『외갓집』에서

집이라는 장소는 세상 밖의 모든 길로 뻗어나가게 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길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종착지이다.³³⁾ 『고야』의 ‘부엌’과 ‘방’은 집을 이루는 구성체이자 시적 화자의 내밀한 의식을 엿보는 구체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그곳은 명절 전날 밤에 나타나는 고향의 민속 풍경과 음식문화의 향내를 형상화하는 더욱 구체적인 시적 매개이다. 예를 들어, 『여우난골』의 ‘토방’이나 『추야일경』의 ‘안방’은 『적경』에서 나타나는 ‘컴컴한 부엌’이나 『수라』의 ‘방바닥’이란 시어와 더불어 집을 구성하는 구성물이면서 각각 고유의 질감을 지닌 장소감을 형성한다.

『고방』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갓집』의 ‘고방’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즉, 고방은 재래식 주택에서 창고의 기능을 하는 방이자 집의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외갓집』의 고방이 유년기 시적 화자가 느끼는 외갓집의 풍경을 경외감으로 형상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다면, 『고방』의 고방은 손자로부터 할아버지에 이르는 가족의 모습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이르는 ‘옛말이 사는’ 전통적 삶의 풍경이 녹아있는 장소이다. 그곳은 “보통 오랜

33) 정유화, 『집에 대한 공간체험과 기호론적 의미:백석론』, 중앙어문학회, 『어문논집』29집, 2001, 260면.

시간에 걸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되어야만 한다. 그들의 애정으로 장소에 스케일과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³⁴⁾는 맥락에서 장소성을 획득한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곶 밭마당에 달린 배나 무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 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씹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때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돈구고 흥게담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룻목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육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셋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정계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여우난골」에서

인용시는 마을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형상화하면서 시적 화자가 위치한 집이란 장소를 시적 대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마을 밖의 형상화는 의 고무, 의 고무, 큰골의 고무 그리고 삼촌을 중심으로 지역과 인간을 긴밀하게 연관시켜 드러낸다. 각각의 지명과 관련하여 나타난 보통명사는 큰집, 건넛집, 예수쟁이 마을, 해변, 면섬 등이다. 이러한 지역 공간의 호명은 모두 각각의 인간군상과 그들의 삶을 환기시킨다.

마을 안의 형상화는 타지의 삶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집안’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풍경을 그려낸다. ‘집안’을 정점으로 ‘안간’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고, ‘방안’에는 ‘새옷’과 각종 음식이 놓여있다. ‘아르간’은 ‘엄매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웃간’에는 아이들이 모여 새벽에 이르기까지 장난과 놀이를 하며 ‘아룻목싸움’을 한다. 각각의 구체적인 장소와 인간은 우리네 삶의 단편을 그린 풍속화를 그리듯 자연스럽게만 여기서 시적 화자의 내면에 놓인 장소와의 갈등을 읽어낼 수 있다.

34)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73면.

시적 화자의 고향은 ‘아름다움과 기쁨을 낳는 과거’³⁵⁾의 체험 장소이다. 또한 시적화자의 순수한 유년의 꿈이 살아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백석의 시편 곳곳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고향마을과 유년 시절의 시화는 소박한 삶의 편린과 공동체 의식의 현현, 다양한 풍물이 드러난 풍경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억에 기댄 유년의 풍경과 체험은 ‘지금-이곳’이라는 현실의 자아가 지닌 이중적 분열증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기표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기억이란 과거이고 과거를 떠올리는 ‘지금-이곳’이란 현실의 문제가 사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은 시집 『사슴』을 관류하는 핵심으로, 백석의 시세계를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을 가능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여행자의 시선과 현실의 장소감

백석의 연보에 따르면³⁶⁾, 1930년 19세에 일본 유학을 기점으로 이후 고향인 정주에 머무른 적이 거의 없다. 유학시절, 조선일보사 취직, 함흥영생고보 교편, 이직 후 『여성』 편집주간, 만주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백석의 연보는 고향의 유년시절과 유학 이후 이향과 유랑으로 점철된 그의 삶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시집 『사슴』의 시적 경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사슴』에서 형상화된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시세계는 고향인 정주에서의 유년 시절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백석을 고향의 시인으로 규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사슴』 이후 시세계는 다르다.

『사슴』의 시편은 시인의 고향인 정주에서의 유년 시절을 토속적인 관점에서 형상화했다면 이후의 시편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기억의 공간에서 현실의 장소로 시적 대상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장소가 끊임없이 이동하며 유랑하는 이향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향에 대한 시선은 유랑이나 여행 같은 이향의 형식을 취할 때 더욱 더 실감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근대적인 인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사슴』 이전의

35) 스티븐 킨, 박성관 역,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4, 127면.

36) 백석의 연보는 송준,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세계 최고의 시인 백석 일대기1-2』(지나, 1994)와 고형진 편, 『정본 백석시집』(문학동네, 2007)을 참고.

시편처럼 과거 유년 시절에 나타난 기억의 편린만을 가지고 고향을 말하는 것보다 고향 상실감을 체험함으로써 혹은 도시 거주 등으로 나타나는 이향 체험을 통해 더욱 더 내면화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 오는데

토방에서는 질화로 우에 곱돌탕관에 약이 끓는다

삼에 숙변에 목단에 백복령에 산약에 택사의 몸을 보한다든 육미탕이다

약탕관에서는 김이 오르며 달콤한 구수한 향기로운 내음새가 나고

약이 끓는 소리는 뻤뻤 즐거웁기도 하다

그리고 다 달인 약을 하이얀 약사발에 발어놓은 것은

아득하니 감해야 만년 넷적이 들은 듯한데

나는 두 손으로 고이 약그릇을 들고 이 약을 내인 넷사람들을 생각하노라면

내마음은 끝없이 고요하고 또 맑아진다

—「탕약」 전문

『사슴』 시편에 나타난 유년 시절의 기억의 장소는 인용시의 경우, 현실의 현재형을 띤 구체적인 ‘토방’이란 장소를 형상화하여 나타난다. 유년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재현해낸 『여우난골』의 ‘토방’과 『탕약』의 ‘토방’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시적 화자의 지향점에서 더욱 다르다.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구축해낸 ‘토방’이 자족적인 과거의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하나의 완결된 형태를 보이는 반면 현재의 ‘토방’은 토방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정의 행위와 의식이 진행형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장소가 시적 전개에 필요한 하나의 오브제에 해당한다면 약탕관에서 끓는 육미탕과 그 향과 소리가 놓인 구체적인 장소인 후자의 ‘토방’은 시적 자아의 의식의 흐름을 지배하는 매체이다. 이러한 점은 『사슴』 시편에서 형상화된 유년 시절의 장소가 기억이라는 시간성에 기대어 있기에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완결된 행위를 동반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과거의 일정한 시간의 지속은 미약해지거나 영원한 기억이나 추억이라는 관념의 일부로 항상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과 현재형 서술어미의 채택은 시적 화자가 지닌 의식의 흐름을 현재의 감정을 지속시키거나 강화시키고, 기억이

나 추억을 넘어선 대과거의 세계로 이끈다.

1연의 '토방'은 지금-이곳을 가득 매운 약탕관의 향기와 소리로 차있다. 향기와 소리는 시적 화자가 느끼는 '삐삐 즐거움기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시적 화자의 즐거움은 “다 달인 약을 하이얀 약사발에 발어놓은” 부산물로 이동한다. 향기의 후각과 소리의 청각에서 부산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옮기는 것으로 약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는 촉각에 이르면, '토방'의 장소감은 시적 화자의 총체적 감각을 동원한 공감각적 형상화에 이른다. 그 형상화의 궁극은 “이 약을 내인 넷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육미탕'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습속이자 전통이다. '만년 넷적'부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끊여졌던 '육미탕'은 그들의 염원과 정서가 한껏 길들여져 선대로부터 후대로 잇는 가교일 것이다. 그러기에 시적 화자의 마음은 정화된다. '육미탕'을 필요로 했던 수많은 선인들의 정서가 시적 화자의 손 끝으로 또한 이어져 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인숙이라도 국숫집이다

모밀가루포대가 그득하니 쌓인 옷간은 들뜬들뜬 더웁기도 하다

나는 낡은 국수분들과 그즈런히 나가 누워서

구석에 데굴데굴하는 목침들에 새까마니 때를 올리고 간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 사람들의 얼굴과 생업과 마음들을 생각해본다

-「산숙」 전문

「산숙」은 깊은 산 속을 공간적 배경으로, 국숫집을 겸하는 여인숙이란 구체적인 장소에서 하루를 묵고 가는 시적 화자의 행적이 나타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어느 여행의 여정 내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 먹는다. “여인숙이라도 국숫집이다”에 깃든 시적 진술은 여행의 과정에서 숙박을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을 함축하고, 일련의 고민 속에서 하루를 보낼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여행자의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다. 시제가 ‘ ’이니 도회지가 아닌 산중이다. 그 곳은 국숫집이기에 ‘옷간’엔 ‘모밀가루포대’가 가득하여 덥지만 환기가 잘되는 듯한 아래간은 ‘낡은 국수분들’이 있어 시적 화자에게 시간의 흐름마저 느끼게 해준다. 또한 새까만 ‘때’가 배인 ‘목침’은 ‘낡은 국수분

들'과 어울려 많은 이들의 숙식을 제공했던 여인숙의 장소감을 환기시킨다.

‘여인숙’의 구체적인 장소감을 환기시키는 ‘국수분들’과 ‘목침’은 오랜 시간의 흐름과 산중을 떠돌아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여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장소의 형상화는 특정 장소의 오브제에 이르면 사물과 정서의 습합이 이루어지는 관계의 상상력으로 나타난다. ‘목침’과 그곳에 때를 묻히고 간 ‘사람들’의 관계를 떠올리는 것. 관계란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목침’에 배인 때를 남긴 “그 사람들의 얼굴과 생업과 마음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현 상황과 관련시키는 정신 활동이다.

시적 화자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시키는 생각하는 구체적인 장소감에서 비롯한다. 이때 장소에 놓인 구체적인 사물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응축시키거나 확장하는 기제로써 작용하며 먼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가까운 미래로 나아가는 매개이기도 하다.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받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리 묘향산 백오십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썩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추운 아침에도 손이 푹푹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팔원」 전문

「팔원」은 서행시초 세 번째 작품이다. 서행시초는 총 네 편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서지방을 여행하면서 쓴 연작시이다. 「팔원」은 한 겨울 묘향산으로 향하는 승합자동차를 탄 시적 화자가 어느 ‘나이 어린 계집아이’를 보면서 상상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의 시제인 ‘팔원’은 평안북도 영변군 팔원면을 뜻하는 지명으로, 팔원에서 묘향산으로 가는 승합자동차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어 현장감을 배가시키는 여행시 특유의 장소감이 나타난다. 시적 화자는 묘향산행 승합자동차의 첫 승객이다. 이어 두 번째 승객으로 차에 오르는 ‘나이 어린 계집아이’가 시적 화자의 시선을 끈다.

“손잔등이 받고랑처럼 몹시도 터진” 계집아이는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이다. 시적 화자는 그 계집아이를 마중 나온 ‘내지인 주재소장’과 다른 아이들의 송별 인사를 자연스럽게 엿듣는다. 이를 통해 시적 화자는 계집아이의 여행 목적과 행선지를 어림잡으며, 이전의 생활상에 대해 추론하면서 미래의 모습까지도 암시하게 된다. 묘향산은 평안북도 향산군과 구장군, 평안남도 영원군, 자강도 희천시에 걸쳐 있는 산이다. 지금 이곳은 ‘팔원’으로 평안북도 영변군에 속해 있는 곳이다. 시적 화자에 의해 추론된 계집아이의 여정은 묘향산을 거쳐 자성으로 가는 길이다. 자성은 자강도 국경지대 끝자락인 중강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곳이다. 묘향산 근처에 살고 있는 삼촌을 찾겠다는 것은 부모가 부재함을 암시하면서 시 후반부에 형상화되어 있는 과거의 삶을 유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시의 후반부에 형상화된 어린 계집아이의 삶이 시적 화자의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개연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이 시가 지닌 구체적인 장소감 때문이다. 시적 화자는 내지인 주재소장인 일본인의 생활과 계집아이의 과거의 힘들었던 삶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주의자의 관계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계집아이의 고된 이전의 삶은 관서지방 특유의 추위와 연관되어 강화되며, 팔원에서 자성까지 삼백오십리에 걸친 험난한 여정은 그녀가 살아가야 할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시적 화자의 눈물이다. “텅 비인 차 안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에서 형상화된 어느 한 사람이 바로 시적 화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적 인식과 더불어 식민지인으로서 내재한 근본적 무력감을 중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시적 화자가 지닌, 계집아이를 향한 연민의 감정을 값싼 동정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흐느끼는 계집아이의 운명을 개연적 진실성으로 정확하게 형상화한 점은 당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암유하고 있거니와 연민의 시선을 보냈던 시적 화자가 들키지 않게 몰래 눈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행동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당대의 ‘텅 비인 차 안’과 같은 장소에 묻어있는 공허함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북관에 혼자 앉아 누워서/ 어니 아츰 의원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넋적 어니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나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
 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넋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
 도 다 있었다

—「고향」 전문

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고향」에서 시적 화자는 타향에서의 외로움을 의원의 따스함과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 고향인 정주라는 장소를 인지한다. 주지하듯 타향-고향-타향의
 세계 내적 길 도식은 순환적 구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고향이란 장소는 그
 외연을 민족이나 국가로 확장하듯 집이나 방 등의 더욱 구체화된 장소를 내
 포하기도 한다. 이 푸 투안은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며,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
 적이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
 의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³⁷⁾고 말한다. 공간이 추
 상적이고 개념적이라면 장소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이다.

「고향」이 지닌 장소감은 시적 화자가 병중에 찾은 의원이고 진료실에서 나
 타난다. 이러한 구체적인 장소는 다시 아버지로, 아버지의 친구로 이어지며
 고향의 의미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
 적인 장소감은 장소 혐오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의
 경우, 지금-이곳은 눈이 폭폭 내리는 깊은 산중이다. 산골이 주는 장소감은
 외로움이나 쓸쓸함 그리고 한적함이다. 시적 화자는 산골에서 홀로 소주를 마
 시며 나타샤를 떠올린다. 시적 화자는 지금-이곳에 부재한 나타샤가 산골에
 꼭 올것이라고 다짐하지만 오기를 바라는 바람일 뿐이다. 이는 시적 화자의

37) 이-푸 투안, 앞의 책, 19면.

외로움을 강조하는 표현이자 지금-이곳인 ‘산골’의 적막감을 배가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감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에서 나타나듯, ‘산골로 가는 것’의 의미가 세상에 대한 결별의 맥락임을 스스로 자위하는 표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산골이 비도시적인 장소를 의미할 때 도시적인 속성을 암시하는 시어가 ‘세상’이기에, 세상 혹은 도시적인 것에 대한 장소 혐오감이라 할 수 있다.

5. 만주의 무장소성과 고향에의 회귀의식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진정성이 세계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인간 조건에 대한 자각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비진정성은 세계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이다.”³⁸⁾ 장소의 안이 주체의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내부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는 진정한 장소감이라면, 내부에서 형성되는 경험을 소유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주체로부터 비진정한 장소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의 밖은 장소 소외감을 형성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 소외감은 장소 상실과 무장소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장소 상실은 이미 장소의 내부에서 진정한 장소감을 경험했다가 이를 자의든 타의든 상실한 주체의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무장소성은 장소 상실감을 느끼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왜냐 하면 장소 상실이 이미 획득한 장소 내부의 경험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장소성은 장소를 획득하지 않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대하는 주체의 태도와 의식을 일컫는다.

이방 거리는/ 비 오듯 안개가 나리는 속에/ 안개 같은 비가 나리는 속에

이방 거리는/ 풍기를 쫓이는 내음새 속에/ 쉼누에 번디 삶는 내음새 속에

이방 거리는/ 도끼날 버르는 돌물레 소리 속에/ 되광대 커는 되양금 소리 속에

38) 에드워드 켈프, 앞의 책, 179면.

손톱을 시뻘하니 길우고 기나긴 창파쓰를 끌고 싶었다/ 만두 꼬깔을 눌러쓰고
곰방대를 물고 가고 싶었다/ 이왕이면 향내 높은 취향리 돌배 움푹움푹 씹으며
머리채 츠렁츠렁 발굽을 차는 꾸냥과 그즈런히 쌍마차 몰아가고 싶었다

-「안동」 전문

「안동」의 시적 공간은 ‘이방 거리’이다. ‘이방 거리’란 다른 나라의 거리를 뜻한다. 그 거리는 익숙치 않은 비와 안개, 콩기름과 쉼누에의 내음새, 돌물레와 되양금의 소리가 가득한 장소이다. 여행자가 낯선 지역에서 낯섬을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것은 감각의 차이에서 오게 마련이다. 이푸 투안에 따르면, 대상 또는 장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총체적일 때, 즉 적극적으로 반성적인 정신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대상과 장소는 구체적인 현실성을 얻는다.³⁹⁾

시적 화자는 시각과 후각 그리고 청각을 동원해 공감각적으로 이방의 거리를 형상화한다. 이를 통해 ‘이방의 거리’에 몰입하고자 주요 감각을 집중해 장소감을 느끼려 하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몰입감은 4연에서 더욱 고조된다. 시적 화자에게는 낯선 풍물인 창파쓰, 꼬깔, 곰방대, 돌배, 꾸냥, 쌍마차 등이 이국 정서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4연의 경우, 각 행의 서술형 종결어미가 모두 ‘-싶었다’로 종결됨으로써 ‘그럴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이방 거리에 대한 형상화는 1연에서 4연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초점화되지만 이국적인 풍경에 동화되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장소 소외감인 무장소성을 극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시적 화자는 이방 거리에서 온갖 이방의 풍물을 접하지만 그 내부의 진정한 장소감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다. 즉, 장소의 내부가 아닌 밖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동」의 시적 화자는 자신이 놓인 이방 거리에 대한 친밀감이나 실존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국의 현실적 삶에 대한 공허감만이 증폭된다.

나는 지나나라 사람들과 같이 목욕을 한다/ 무슨 은이며 상이며 월이며 하는
나라 사람들의 후손들과 같이/ 한물통 안에 들어 목욕을 한다/ 서로 나라가

39) 이-투 투안, 위의 책, 38면.

다른 사람인데/ 다들 쪽 발가벗고 같이 물에 몸을 녹히고 있는 것은/ 대대로
조상도 서로 모르고 말도 제가꿈 틀리고 먹고 입는 것도 모두 다른데/ 이렇게
발가들 벗고 한물에 몸을 씻는 것은/ 생각하면 쓸쓸한 일이다/ 이 탄 나라 사람
들이 모두 니마들이 번번하니 넓고 눈은 킁킁하니 흐리고/ 그리고 길쭉한 다리
에 모두 민승민승하니 다리털이 없는 것이/ 이것이 나는 왜 자꼬 슬퍼지는
것일까

-『조당에서』에서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냇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두보나 이백 같이』에서

이와 같은 이국의 공간에서 접하는 풍경은 국내의 그것과 다르게 장소화되
어 나타나지 않는다. 『조당에서』에서 나타난 장소는 목욕탕이다. 장소의 문제
가 탈식민주의의 공간적 함의를 가장 적절히 대변해준다는 데 주목한 박주식
은 장소가 문화적 가치들이 서로 겨루는 갈등의 터전이며 또한 그 가치들이
구체화되어 드러나는 재현의 현장이라 본다. 따라서 그는 장소는 지질학적 공
간이 아닌 문화적 공간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한다.⁴⁰⁾ 따라서 목욕탕은 두 나
라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가 갈등하면서 자신이 속한 자국의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이때 시적 화자가 이방인이기에 이러한 자국과 타국
의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시적 화자는 자국의 목욕 문화와 ‘지나’의 그것을 변별하면서 “한물에 몸을
씻는 것”이 ‘쓸쓸한 일’이며 ‘슬퍼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하나
의 탕 안에서 같이 목욕을 한 경험의 없다는 점과 이국적 풍모를 지닌 사람들

40)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장소, 재현 그리고 타자의 담론』, 고부웅 편,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259~261면.

과의 괴리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두보나 이백 같이』에서도 동일하게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정월 대보름 명절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이란 가정을 통해 자신이 처한 이국의 현실을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표출한다.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서는 근본적으로 고향의 외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향을 넘어 타국이란 환경적 요인은 그 정서를 배가시킨다. ‘고향의 내 집’이란 장소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배태시키는 주요한 요소이다.

장소는 그것이 기억의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기억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장소들은 회상을 구체적으로 지상에 위치하게 하면서 그 회상을 공고히 하고 증거할 뿐 아니라 인공물로 구체화된 개인과 시대 그리고 문화의 다른 것에 비해 비교적 단기적인 기억을 능가하는 지속성을 구현한다.⁴¹⁾ 따라서 ‘고향의 내 집’과 그로인해 회상되는 수많은 회상들의 지속성은 시적 화자가 위치한 장소의 무장소성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만주리는 이방의 풍경은 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장소에 대한 친밀감이나 실존감을 양산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이국의 삶에 대한 공허감만을 배가시킬 뿐이다. 이는 궁극에 이르러 시적 화자 자신의 정체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성찰함으로써 더욱 확고한 내면을 형성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네 집 현 샷을 깬/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달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
 을 안고 손을 찌며 재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두
 았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
 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썩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꼭 매어
 을 적이며/

41) Aleida Assmann, 변학수 외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392면.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찻랑찰랑 싸락눈이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싯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찻랑찰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

」 전문.

인용시는 현실의 장소과 지향으로서의 장소애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백석의 대표적인 시편에 속한다. 시적 화자가 놓인 현실은 아내도 집도 없는 상황이자 부모와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진 장소이다. 그곳은 사람이 거처할 만한 환경이 아니다. 열악한 거주 장소는 시적 자아에게 슬픔과 어리석음 그리고 부끄러움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러한 현실의 장소감은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낄 정도로 어눌하고 폭력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잠시 뒤에 고개를 든다는 시행을 통해 반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의 평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고개를 들다’의 동사가 지닌 상승적 이미지는 현실의 척박함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시적 자아의 지향성을 담보하는 의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시적 화자의 지향의식은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에 형상화되어 있다. 갈매나무는 시적 자아가 놓인 현실의 장소에는 부재한 사물이다. 즉 시적 자아는 ‘지금-여기’라는 현실의 장소에 있지만 ‘갈매나무’는 시적 자아가 과거에 체험한 관념의 영역에 실존하는 장소애를 표상하는 기표이다. 이는 백석의 시편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전통지향성

이나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는 형상화 전략을 다른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현실의 장소와 과거의 장소에 대한 장소애의 괴리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억이란 과거에 의존하는 시적 자아의 강렬한 장소 지향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년의 기억에 실존하는 실존적 장소애를 통해 시인의 의식 지향점을 찾아 일관된 자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속적 관점이다. 둘째, 첫째와 달리 과거와 현재를 단절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불연속적 관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실존적 장소애를 현실을 바라보는 거울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이곳’의 비정한 현실은 과거 고향에 대한 장소애를 강하게 드러내면 낼수록, 역으로 현실적 장소는 시적 자아의 뿌리내림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즉 시적 자아가 처한 ‘지금-여기’는 구체적 장소애를 내재한 장소가 아닌 추상적이고 정주할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때 시인은 이러한 장소에 대한 사유 과정을 통해 장소 소외감인 장소 상실감과 무장소성을 동시에 겪게 되는 것이다.

6. 결론

이 글은 백석의 시에 나타난 토포필리아 양상을 주목하여 시인의 장소 의식이 시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인의 시의식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고찰하였다. 본고는 백석 시에 나타난 현상이나 장소에 대한 형상화가 시인의 시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백석의 시편을 크게 『사슴』과 그 이후의 작품군으로 나눌 때 기억의 공간을 주로 형상화하여 고향인 정주에서의 유년 시절을 토속적 관점에서 그리는 것이 전자이다. 후자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기억의 공간에서 현실의 구체적인 장소로 시적 대상이 이동한다. 여행자의 시선은 유랑이나 여행같은 이향의 형식을 취하면서 고향에 대한 근대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장소감을 통해 확보된다. 시인은 과거 유년 시절에 나타난 기억의 편린만을 가지고 고향을 말하는 것보다 고향 상실감을 체험함으로써 혹은 도시 거주 등으로 나타나는 이향 체험을 통해 진정한 장소감을 내면화 시킨다.

백석의 만주시편은 현재와 과거의 장소에 대한 괴리감을 장소 상실감이나 무장소성을 드러낸다. 만주라는 장소의 안에 동화내지 적응하지 못하는 시인은 장소의 내부로부터 연원하는 진정한 장소감을 느끼고자 욕망하지만 이방의 거리에 대한 친밀감이나 실존감을 갖지 못한 장소의 무장소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만주의 무장소성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나타나듯, ‘지금-이곳’의 장소와 과거 기억의 장소를 병치시켜 현실의 문제를 성찰케 하는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지닌다.

〈참고문헌〉

- 가스통 가솔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 고형진, 『백석 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3.
- 고형진, 『백석 시 바로 읽기』, 현대문학, 2006.
- 고형진 편, 『정본 백석시집』, 문학동네, 2007.
- 권영옥, 『백석 시에 나타난 토속성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7.
- 김경은, 『김광균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인문사회논총』17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0
-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 1. 29.
- 김명인, 『백석시고』, 『백석』, 고형진 편, 새미, 1996.
- 김민숙, 『노천명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12.
- 김수경, 『백석 시의 시간 활용 방법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2.
- 김승구, 『백석 시의 낭만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 김용직, 『토속성과 모더니티』, 『한국 현대시 해석 비판』, 시와시학사, 1993.
-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 비평사, 1988.
- 김은철, 『백석 시 연구-과거지향의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15집, 한구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 김재홍, 『민족적 삶의 원형과 운명예의 진실미』, 『한국문학』192호, 1989.
- 김재용, 『근대인의 고향 상실과 유토피아의 연원』, 『백석 전집』, 실천문학사, 2003.
- 김종철, 『30년대 시인들』, 『문학과 지성』, 1975년 봄.
- 김태준, 『고향, 근대의 심상공간』,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8.
- 김형욱, 『백석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12.
- 김혜영, 『백석 시 연구』, 『국어국문학』131호, 국어국문학회, 2002.
- 나카노 하자무, 최재석 역, 『공간과 인간』, 도서출판 국제, 1999.
- 노용무, 『정지용 시의 이미지 연구-집 이미지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논문, 1997.
- 노용무, 『백석 시와 탈식민적 글쓰기』, 『어문론집』49, 2012.

- 류경동, 『잃어버린 시간의 복원과 허무의 시의식』, 『1930년대 후반문학의 근대성과 자기성찰』, 깊은샘, 1998.
- 류지연, 『백석 시의 시간과 공간의식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2002.
- 맹재범, 『백석 시의 시간문제에 관한 한 고찰』, 경희대 석사논문, 2007.
- 문재원, 『문화전락으로서 장소와 장소성』,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2007.
- 박순원, 『백석 시의 시어 연구:시어 목록의 고빈도 어휘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07.
-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 고부웅 편,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259~261.
- 박주택, 『낙원회복의 꿈과 민족정신의 복원』, 시와시학사, 1991.
- 박주택, 『백석 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9.
- 박태일, 『백석 시의 공간 현상학』, 고희진 편, 『백석』, 새미, 1996.
-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 서란화, 『백석 시의 방언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서정호, 『백석 시에 형상화된 시어의 이미지중적 특성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11.
- 서효인, 『백석 시 연구-모더니티 구현양상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논문, 2009.
- 소래섭, 『백석 시에 나타난 음식의 의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8.
- 송 준,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세계 최고의 시인 백석 일대기1-2』, 지나, 1994.
- 스티븐 킨, 박성관 역,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4.
- 심재휘, 『시간을 밀봉하는 방법:백석의 「여우난굴」』, 『시안』제13권 2호, 시안사, 2010.
- 심재휘, 『한국 현대시와 시간』, 월인, 1998.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에드워드 소자 외, 이무용 외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 염창권, 『집없는 시대의 길가기-일제강점기 한국 현대시의 공간구조』, 한국문화사, 1999.

- 유병관, 「백석 시의 시간 연구」, 『국제어문』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 유인실, 「백석 시의 로컬리티 연구」,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건지인문학』7, 2012.
- 윤의섭, 「정지용 후기시의 장소성」, 『현대문학이론연구』4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 윤지관, 「순수시와 정치적 무의식」, 『외국문학』, 1988년 겨울호.
- 이동순, 「민족 시인 백석의 주체적 시정신」, 『백석 시 전집』, 창작과비평사, 1997.
- 이문재, 「김소월·백석 시의 시간과 공간의식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8.
- 이민정, 「백석 시의 신화적 상상력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 이병초, 「백석시의 고향의식과 형상화 방법」, 고려대 석사논문, 2006.
- 이소연, 「백석·윤동주 시의 동심지향성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1.
- 이승원, 「풍속의 시화와 늘변의 미학」,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 이승원, 「백석 시의 전개와 그 정신사적 의미」, 『현대시와 현실 인식』, 한신문화사, 1990.
- 이승원, 『백석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2006.
- 이승원, 「백석 시에 나타난 자아와 대상과의 관계」, 『한국시학연구19호』, 2007.
- 이승원, 『백석을 만나다』, 태학사, 2008.
- 이재선 편, 『문학 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140.
-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432.
- 이-투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 이혜원, 「김소월과 장소의 시학」, 『생명의 거미줄』, 소명, 2007.
- 임승빈, 『경관분석론』, 서울대출판부, 2009.
- 정유화, 「집에 대한 공간체험과 기호론적 의미:백석론」, 중앙어문학회, 『어문논집』29집, 2001.
- 정재형, 「백석 시의 시어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9.
- 정진원, 「인간주의 지리학의 이념과 방법」, 『지리학논총』11집, 1984.
- 지주현, 「백석 시의 서술적 서정성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08.

- 차한수, 『백석 시의 시간·공간성 고찰』, 『동남어문논집』6호, 동남어문학회, 1996.
- 최두석, 『백석의 시 세계와 창작 방법』, 『리얼리즘의 시정신』, 실천문학사, 1992.
- 최만중, 『김소월 시에 있어서 ‘장소애’의 현상학적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1.
- 최병두, 『장소의 역사와 비판적 공간이론』, 『로컬의 문화지형』,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2007.
- 최수현, 『백석 시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10.
- 최정례, 『백석 시의 근대성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4.
- 최정례, 『백석 시어의 힘』, 서정시학, 2008.
- 최학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과 주체 욕망의 체계에 대한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4.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 Aleida Assmann, 변학수 외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 Otto. F. Bollnow, 백승균 역, 『삶의 철학』, 경문사, 1979.

【국문초록】

이 글은 백석의 시에 나타난 토포필리아 양상을 주목하여 시인의 장소의식이 시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인의 시의식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고찰하였다. 본고는 백석 시에 나타난 현장이나 장소에 대한 형상화가 시인의 시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백석의 시편을 크게 『사슴』과 그 이후의 작품군으로 나눌 때 기억의 공간을 주로 형상화하여 고향인 정주에서의 유년 시절을 토속적 관점에서 그리는 것이 전자이다. 후자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기억의 공간에서 현실의 구체적인 장소로 시적 대상이 이동한다. 여행자의 시선은 유랑이나 여행같은 이향의 형식을 취하면서 고향에 대한 근대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장소감을 통해 확보된다.

백석의 만주시편은 현재와 과거의 장소에 대한 괴리감을 장소 상실감이나 무장소성을 드러낸다. 시인은 장소의 내부로부터 연원하는 진정한 장소감을 느끼고자 욕망하지만 이방의 거리에 대한 친밀감이나 실존감을 갖지 못한 장소의 무장소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만주의 무장소성은 ‘지금-이곳’의 장소와 과거 기억의 장소를 병치시켜 현실의 문제를 성찰케 하는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지닌다.

주제어 : 백석, 인문지리학, 공간, 장소애, 장소감, 무장소성, 회귀의식

【Abstracts】

Baek Seok's Poetry and His Topophilia

Noh, yongmoo

This paper considers the aspects of topophilia reflected in Baek Seok's poetry. Namely, the way his consciousness of place is realized and the relation with his poetic consciousness are mainly considered. This paper explains that the imagery of several sites and places showed in Baek Seok's poems is closely linked to the poet's consciousness as following.

If Baek Seok's poems might be roughly divided into Deer and other works after Deer, the former tells the childhood in his hometown Jeongju under the folksy point of view through the imagery of places in his memory, and in the latter, poetic objects are transferr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from the places in his memory to those in his reality. The gaze of traveller takes the forms like wandering or travelling and shows the feeling of places reinforcing modern awareness about hometown.

Baek Seok's Manchuria poems reveals the estrangement of place like the sense of loss of places or placelessness. The poet desires veritable feeling of places rooted from the inside of them, but he is not free from the placelessness not having the intimacy or existential feeling of distance. But the placelessness of Manchuria juxtaposes places of 'now and here' and those of past memory, as a result, functions as an important medium which leads the introspection of problems in reality.

Key words : Baek Seok, human geography, space, topophilia, sense of places, placelessness, recurrent consciousness

이 논문은 2013년 12월 2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